

익산시, 피해 극복 '한마음'

시민·기관·단체 희망 나눔 앞장 40여곳 성금 동참 총 2055만원 모금

익산시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을 위한 희망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침수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총 2055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지역에서는 침수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이리중앙교회가 1000만원을 영

등1동 유관단체 350만원, 익산사이버린이집연합회 300만원 등 시민과 단체 40여곳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 모금활동은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금활동과 함께 수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중앙동 전 통시장 일원에서 '희망 장터'도 진행된다.

이 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플러스 혜택 이벤트가 제공된다.

희망 장터 스티커가 부착된 점포에서 다이로움을 이용할 경우 20%의 페이백 등 서비스와 함께 10% 피해 상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민들의 성금 모금과 함께 시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 제공에 집중한다.

중앙동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재난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또 용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플로깅(Plogging)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플로깅 캠페인'

'학생·시민 대상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플로깅(Plogging)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번 플로깅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플로깅 캠페인은 비대면으로 개별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천리길 해설사와 함께 군산지역 4곳에 있는 전북 천리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천리길 해설사와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은 3~4명이 모여 신청하면 가능하고 봉사시간과 함께 텀블러를 증

정한다.

참여대상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캠페인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참여방법은 플로깅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시태그(#금강미래체험관 #플로깅)를 달아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한 후, 금강미래체험관 SNS에 참여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면 된다.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및 일반 시민은 선착순 100명에게 금강미래체험관 텀블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수진 천리길해설사는 "군산에는 구슬피, 물빛길, 탁류길, 고군산 등 전북천리길로 선정된 곳이 4곳이 있는데 걸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며 "이번 플로깅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구불길도 걸으면서 군산을 사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장, 군산상고 지역 명사 초청 특강

'역전의 명수와 군산의 기상'

주제 청년 동기부여 강연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역전의 명수와 군산의 기상'이라는 주제로 동기부여 강연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실시한 이번 강연은 군산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 주관으로 군산상고 1~3학년 학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초청 강사로 강연에 오른 강 시장은 강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과 지난 1972년도 황금사자기 결승전 영상을 시청한 후 9회말 투아웃 4:1상황에서 군산상고가 이룬 역전극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야구가 없었던 시절 황금사자기 결승전은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그날의 역전승은 단순히 야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끝까지 포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역전의 명수와 군산의 기상'이라는 주제로 동기부여 강연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겨준 역사적인 경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에게 '역전의 명수'라는 군산의 정신을 불어넣고 군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모교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도 이어 갔다.

청년들이 취업과 성공을 위해 수도권

으로 떠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출렁현상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경암동, 도시재생 안정사업 공모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 안정사업 공모에 군산시 경암동이 선정되며 도심활성화 복합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된다.

군산시는 협소한 경암동 현정사부지와 인접한 구암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형 생활SOC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학교유류부지 사용을 위한 도교육청,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 도입시

설관련 지역수요조사, 설문·의견수렴, 관계부서 협의회를 거쳐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수립, 지난 4월 16일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다.

현장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7일 제27차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학교시설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기준 검토와 수송·미장 택지개발로 도시기능이 재편되고 학생인구

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도심 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것에 착안, 유휴공간을 연계해 방과 후 돌봄시설 등 학생교육 기능과 더불어 지역 내 교육·문화·소통의 중심이 되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본 사업 선정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유출, 학생인구 감소, 주거지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암동 지역의 생활인프라도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장마철 병충해 방제·습해 예방 당부

군산시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장마에 따른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습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습도와 기온이 높은 장마기간에 3일 이상 연속강우나 호린날 기온이 20~25℃ 정도 지속되면 도열병 등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으로, 특히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한 논에서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잎도열병은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 저하에 영향을 끼치며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으며 발병 포기율이 20% 정도 발생된 논은 이삭패기 10~20일 전 방제해야 발생률을 경감시킬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축·어업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추진

군산시가 최근 농·축·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 종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며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 대해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현재 군산지역에는 752명의 유학생과 303명의 어선원, 902명의 제조업관계자 등 총 5500여명의 외국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이상 증상이나 예방차원의 진단검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13명 집단감염

익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동료 근로자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들은 전북 2436번(익산 482번)부터 전북 2448번(익산 494번)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모두 익산의 한 육묘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전북 2436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0일 두통 증상이 발생해 검체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 검사를 통해 12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견했다.

보건당국은 핸드폰 등을 활용한 이동통신 파악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